
초대의 글

청년의 기상, 캠퍼스의 낭만을 운운하던 때가 정말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꿈과 낭만과 패기로 가득해야 할 청년시절을 취업 준비와 학자금 마련하는 데 소비하기 바쁘지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꿈에 부풀어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음 한편에 가득한 외로움과 불안감에 오늘도 한숨을 짓습니다.

교회 안의 청년도 예외는 아니기에 청년 사역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들 말합니다.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사역자로 부름 받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교육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감리교청년목회전문훈련과정(YMMTC)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300여명의 청년사역자들이 훈련받고 교회로 돌아가 청년부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와 예배를 살리고 싶은 열의에 가득 차 있으나 청년목회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6기 감리교청년목회전문훈련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청년 목회 멘토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강의와 패널 토의로 알차게 구성된 2박 3일간의 일정은 여러분에게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리교청년목회전문훈련과정으로 교회의 청년부가 되살아나고 청년을 온전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청년사역자 여러분을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정현범

일정표

		17일(월)	18일(화)	19일(수)
am	6:00		개인묵상	개인묵상
	7:00		기상 및 아침식사	기상 및 아침식사
	8:00			
	9:00		Listen Up 들리는 설교 김영석 목사	Boom Up 단기선교 김동준 목사
	10:00			
pm	11:00			폐회 예배 및 수료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00			
	2:00			
	2:00	접 수 개회예배 _ 정현범 목사	조별 모임	집으로
	3:00			
	4:00	Set Up 청년목회시스템 현철호 목사	Upbeat 활기찬 소그룹 김선국 목사	
	5:00			
	6:00	휴 식	휴 식	
	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8:00	Uplifting 영감있는 예배 심은수 목사	Upgrade 기도와 영성 조세영 목사	
	9:00			
	10:00	자유시간 및 취침	자유시간 및 취침	

Set Up 청년목회 시스템 현철호 목사	04
청년사역을 맡은 자에게는 청년목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청년목회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시간. 청년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운다.	
Uplifting 영감 있는 예배 심은수 목사	19
청년 예배는 달라야 한다. 청년들의 성향에 맞는 예배, 청년들이 열광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맞는 영감 있는 예배를 찾아본다.	
Listen Up 들리는 설교 김영석 목사	24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설교. 불붙는 논리가 있는 설교. 청년들이 반응하고 변화되는 설교. 탁월한 설교가가 되기 위한 나만의 강점을 발견한다.	
Upbeat 활기찬 소그룹 김선국 목사	29
소그룹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부흥한다.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소그룹 인도의 다양한 방법까지 소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	
Upgrade 기도와 영성 조세영 목사	37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는 기도가 살아 있다. 개인 기도에서부터 공동체 기도회의 인도까지 기도에 대한 다양한 은혜와 방법을 나눈다.	
Boom Up 단기선교 김동준 목사	51
선교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영적 여정과 도전 각 공동체에 적합한 단기선교의 핵심 코드를 배운다.	

목차와 프로그램 안내

It's Up Time!

청년 목회 멘토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
청년 목회 본질과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배우는
시간이 펼쳐진다.



Set up 청년목회 시스템

현철호 목사 백운교회

청년부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내기 위하여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필자는 “청년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목회 분야의 단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목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청년목회 시스템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청년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 원리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자가 섬겼던 “아현감리교회의 청년목회”를 하나의 모델로 소개하면서 청년목회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청년목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원리”와 “하나의 샘플”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섬기는 청년부를 “객관적인 눈으로 진단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각자의 청년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낼 수 있는 접착점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한 청년목회 시스템! 과연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

1. 청년부 비전을 세우라.

청년부는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 비전은 청년부의 “방향성”이다. 청년부의 “DNA”이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각 공동체마다 주시는 비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만들라.
+ 핵심가치(Core Value)를 결정하라.
+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을 한 마디로 결정하라. (슬로건)

어떻게?

- + 절대 사역자 혼자서 만들지 마라. 핵심멤버들과 함께 하라.
- + 조금하게 만들지 마라. 땀을 들일수록 좋다.
- + “기도+나눔+정리”의 방법을 사용하라.
- + 분명한 문장으로 명시하라.
- + 벤치마킹을 하라.

2. 청년부 비전을 공유하라.

공유되지 않은 비전은 아무런 힘이 없다.
비전은 공유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 + 비전선포예배를 드리라. (1회)
- + 강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 + 교회 곳곳에서 비전 문구가 눈에 보이게 하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스티커)
- +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전을 나누라. 꿈을 꾸라.

3. 토양작업을 하라.

비전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 토양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큐티이다.
청년부가 예배공동체, 기도공동체, 큐티공동체가 될 때 비전은 잘 자랄 수 있다.

1)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예배는 기념식이 아니다.
예배는 축제예배이다.
예배는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청년부 예배에 있어서 찬양팀은 정말 중요하다.
찬양인도자는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청년들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사역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많이 먹어야 한다. 맛있게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잘 자란다.

2) 기도

사역자가 먼저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라.

청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라.

개인 골방기도, 공동체 합심기도를 균형 있게 하라.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핵심을 치는 기도 사역을 하라.

3) 큐티

은혜의 자급자족 4영리를 가르치라.

제2상한적인 삶을 제시하라.

큐티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자훈련팀이나 단기선교팀 등 점점이 가능한 그룹부터 시작한다.

큐티는 어렵게 접근하면 안된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큐티진의 도전-상황-변화-적용)

쉽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하라.

또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4. 비전을 구동할 수 있는 큰 기둥을 세우라.

청년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다.

1) 양육기둥을 세우라 : 소그룹

- + 양육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 왜냐하면 청년은 양육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
 - + 교회 현실에 맞게 세우면 된다.
 - + 가장 중요한 것이 소그룹에서의 양육이다.
 - + 소그룹은 “사랑의 바구니에 진실을 담아 이야기” 할 수 있는 “영적가족” 모임이다.
 - + 진정한 변화는 “소그룹 안에서 말씀에 비취진 삶을 나눌 때” 일어난다.
-
- + 소그룹의 핵심은 결국 소그룹 리더이다.
 - + 소그룹 리더에게 투자하라.
 - + 소그룹은 축제예배와 함께 공동체를 비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날개이다.

2) 사역기둥을 세우라 : 사역팀

- + 청년은 양육 받아야 할 나이지만 동시에 사역해야 할 나이이다.
- + 은사와 열정에 따른 사역팀을 세우라.
- + 각 사역팀은 공동체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
- + 청년들의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은사발견세미나를 실시한다.
- + 이들을 구체적인 사역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팀을 운영한다.

3) 친교기둥을 세우라 : 또래모임

- + 또래모임은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3중 그물 중의 하나이다.
- + 위 두 기둥으로 잡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효과적이다.

5.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라.

- 1)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를 세우라.
- 2) 팀장을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라.
- 3) 또래장을 잘 세우라.
- 4) 세워진 리더십에 투자하라.
- 5) 위탁교육을 시키라.
- 6)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라.

6. 비전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라.

비전과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략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전략이 세워졌는가? 실천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늘 점검하라. 수정하라.

행함이 중요하다.
고민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
부족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

아현감리교회 청년목회

7. 청년목회의 실제 : 아현교회 청년 목회(2006년 자료)

1. 청년교회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우리의 사명은 청년을 양육, 훈련시켜서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2. 청년교회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3. 핵심 가치(Core Value)

가) 예배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나) 교제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다) 양육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 사역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저마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각 분야에서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마) 기도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기도하는 것이다.

바) 증거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4. 지난 사역 평가와 2006년 청년교회 목회 방향

2002년 1월 10일, 아현 청년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과 “사명선언문” 그리고 6가지의 “핵심가치(예배, 교제, 양육, 사역, 기도, 증거)”를 결정하고 이것을 6대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청년교회는 지금까지 이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매년 이 비전과 사명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과제들을 수정, 보완해 왔다.

2002년도는 무엇보다 “비전을 공유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담당목사와 제1기 청년교회 리더들이 함께 세운 이 비전을 모든 청년들과 함께 품어가는 해였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도 힘쓰는 해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소그룹을 소개하고 소그룹의 유익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등 공동체의 토양작업을 하는 해였다.

2003년도는 실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큰 기둥을 세우는 해”였다. 즉 담당목사 1주차교육- 5주 새가족반- 소그룹양육- DTS훈련- 제자훈련 등으로 이어지는 양육체계를 수립하였고, 실현 가능한 사역팀을 비전에 맞게 세워나갔으며(현재 15개 사역팀), 또래별 모임을 신설함으로써 양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친교공동체의 기둥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교회는 비전을 구동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도는 청년교회가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던 한 해였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결국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라고 설정하였고,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생겨나는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며 노력했다. 즉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고 노력해 나갔다.

2005년도는 이러한 “전도공동체의 비전”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고 성취해 나간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전도공동체의 비전은 년2회 실시되는 “VIP초청잔치”라는 전략을 통해 성취해 나갔고, 선교공동체의 비전은 역시 년2회 실시되는 “단기선교”를 도구로 삼아 아현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 네팔, 몽골 등을 품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에는 이형우 청년을 C국 태권도 선교사로, 김은아 청년을 네팔 소망의 집 음악교사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자체적으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이후의 모든 후원을 지금까지 청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전을 확장시키는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비전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난 4년을 토대로 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웠던 청년목회 1기를 잘 매듭짓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도공동체와 선교공동체”의 모습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그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비전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전도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VIP초청잔치”를 매뉴얼화 작업을 할 것이다. 즉 VIP초청잔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행정서식, 현수막, 초청장, 각종 영상, VIP 현황판, 등을 체계화시켜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돌봄과 양육 위주로 진행되어오던 소그룹을 “목적 이 있는 소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학기초 소그룹을 시작하

면서부터 모임의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강조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생활화 해나가는 소그룹을 형성해 갈 것이다. 결국 청년교회의 소그룹은 셀교회의 셀과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소그룹이 재생산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리더수급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 역시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이제 청년교회는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사역의 장을 넓혀 갈 것이다. 우선 북아현동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중,고,대)을 파악한 뒤, 이 학교들과의 가능한 접촉점을 연구하여 청년교회 차원에서 지역의 학원선교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할 것이다. 가능한 전략을 결정하면 우선 한 두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학원선교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단기선교를 여름, 겨울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아현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이러한 단기선교를 통해 청년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나갈 것이다. 이 단기선교의 방향은 ‘우리의 필요’가 아닌 ‘장기사역의 필요에 따른’ 단기사역이 되도록 하며,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재정을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미 파송한 청년선교사인 C국의 이형우 청년과 네팔 소망의 집의 김은아 청년을 위해 소그룹 차원으로 매월 1회 자발적 후원

금을 모금하여 안정적이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해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소그룹 모임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들을 파송한 공동체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토록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 두 청년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또 다른 청년 자원을 발굴하여 청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장단기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청년교회 청년들의 재정능력이 많은 사람을 모두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파송되는 청년들의 경우는 최대한 자비량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도공동체의 비전,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함께 이끌어 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그러므로 2006년 양육과 훈련의 초점은 핵심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두게 될 것이다. 곳곳에 “준비된 리더십”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런 청년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범위를 좁혀 비전에 집중된 제자훈련, 비전에 집중된 리더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소그룹 리더, 사역팀장들에게 각 분야에 맞는 적절한 외부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이 모든 사역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예배 사역자를 위한 투자를 해나갈 것이다. 찬양팀, 위심팀, 중보팀, 새가족팀 등 예배와 관련된 사역팀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예배가 더욱 살

아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핵심 리더들에게는 국내외의 선진예배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청년교회에서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셀교회)”로 설정하고 “셀교회로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생소한 명칭이나 틀을 바꾸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셀교회의 시스템과 가치들을 현재 청년교회의 구조에 도입하고 적용하면서 점진적인 셀교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셀교회로의 전환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특히 셀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2006년은 사역의 시스템을 체계화 시켜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담당목사나 핵심 리더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사역팀을 운영해 왔다. 2006년에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역팀의 사역을 세분하여 코드화하고 각 사역마다 요구되는 은사, 열정, 성격유형 등을 정리하고, 각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구체적인 사역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소위 “사역기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이 사역기술서를 토대로 하여 기존 청년들과 새로 전도되는 청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열정과 성격 등에 따라 사역을 배치, 조정해주는 사역국을 운영함으로써 청년교회가 사역의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2006년도의 사역을 통해 아현교회에서는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배출된 청년들이 가

깝게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속으로 파송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영적군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5. 비전성취를 위한 2006년도 전략(Strategy)

청년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6가지의 핵심가치로 분류하고 있다. 청년교회는 이 6가지의 핵심가치를 “6대 비전”이라고 부른다. 즉 “예배, 교제, 양육, 사역, 기도, 증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2006년의 청년교회의 목회계획 역시 이 6가지의 분야로 구분한 뒤, 현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적 목표들을 수정 보완해서 “2006년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그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가) 2006년 예배

- 1) 청년교회는 지금까지 4부 예배의 초점을 “구도자(seeker)를 고려하는 예배”로 설정하고 예배를 발전시켜 왔다. 그것은 청년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되어지는 청년들을 고려한 이유였다. 청년교회는 2006년도 역시 전도공동체의 비전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 청년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므로 4부 예배 순서의 모든 초점을 더욱 “구도자(seeker)”에 맞춰간다.
- 2) 설교의 메시지는 더욱 복음적인 내용을 지향한다.
- 3) 예배 순서 역시 구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간증, 영상, 드라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4) 예배와 관련된 사역팀(찬양팀, 중보팀, 위십팀, 영상팀, 새가족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연합사역을 실시한다.

- 5) 예배관련 핵심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타교회 방문, 예배 관련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6월말에 열리는 힐송컨퍼런스에 찬양팀의 핵심멤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4부 예배의 안정된 예배 환경에 필요한 장비를 보완한다. (악기 및 음향시스템 등)
- 7) 4부 예배가 이 시대의 청년중심의 대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2006년 교제

현재까지 구축된 세 가지의 교제의 기둥 즉 소그룹 또래모임 사역팀 등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간다. 소그룹 중심의 또래모임과 사역팀 모임이 진행되되, 비정기적이던 또래모임을 매 짝수달 마지막 주일로 고정시켜 안정화시키고, 사역팀 모임 역시 각 팀별로 정례화시킨다.

- 1) 소그룹 : 소그룹은 기본적인 교제의 장이다. 소그룹을 전인적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한다. (매주)
- 2) 사역팀 : “은사따라 열정따라” 모인다. (수시로 모여 정기모임을 고정시킨다.)
- 3) 또래모임 : 또래모임을 활성화 시킨다. (격월로 짝수달 마지막 주 소그룹 시간에 모인다)
- 4) 전체모임 : 2006년 잠정적으로 전체모임은 하지 않는다. 전체모임 기능 가운데 새가족, 등반자 소개는 설교 전에, 생일자 소개는 교제송 시간에, 그 외의 광고는 소그룹 시간에 진행한다. 또 필요한 중요한 광고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설교 전에 진행한다.

5) 연간 3회의 리더십캠프를 통해 청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교제를 튼튼히 한다.

- 6) 소그룹별M.T를 년2회, 사역팀별M.T를 년1회 이상, 또래별 정기모임을 총6회 갖는다.
- 7) 홈페이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온라인 상에서도 교제한다.

다) 2006년 양육 훈련

현재까지 구축된 “양육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확립하여 실시한다. 그 양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은 담당목사와의 “첫모임”을 통해 아현교회, 청년공동체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담당목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례화한다.(집콕점)
- 2) 새가족반(5주과정)을 통하여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양육한다. 새가족반에서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과 아현청년교회의 비전 등을 교육한다.
- 3) 새가족반을 마친 이들을 소그룹으로 등반시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갖게 한다.
- 4) DTS훈련, TD, 등 각종 위탁교육을 통해 훈련을 심화시켜 간다.
- 5) “제자훈련”을 통하여 리더후보생들을 길러낸다. - 예비리더
- 6) “리더반”을 통하여 리더로 섬기게 한다. - 리더

양육을 위해 필요한 “단기세미나”를 실시한다.

+ 다양한 양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세미나, 책 등)를 청년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고, 필요한 위탁교육은 지원하여 참여시킨다.

+ 정기 청년심방(매주 화, 목)을 실시한다. (가정, 직장, 학교)

라) 2006년 사역

+ 2006년도에는 사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코드화하여 사역을 분류하고 그 사역 하나 하나의 사역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배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사역시스템 안에서 모든 청년들은 “일인일사역”을 하도록 권한다.

+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도록 지도한다.

+ 교회 내 사역을 적극적으로 권면한다. (교사, 성가대, 식당봉사, 각종 봉사)

+ 2006년도에는 청년교회에서 고3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고3 사역”을 실시한다. 특히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기 초부터 청년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약 10개월 동안 일대일로 멘토가 되어줄 청년을 정하고, 최소 월1회의 접촉과 돌보는 “고3사역”을 한다.

+ 그러나 사역이 중복되어 과중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사역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양육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간다.

- 1)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은사발견세미나, 은사상담 시스템 구축)

2) 비전따라 은사따라 구체적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3)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연합하고 협력하게 한다.

4) 모든 사역팀의 구체적 목표는 전도와 선교를 지향한다.

5) 기존 사역팀은 더욱 내실있게 꾸려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역팀은 계속 신설한다.

(행정, 문서, 새가족, 찬양, 중보, 주방, 위생, 영상, 교사, 성가대, 선교, 캠프, 태권도, VIP팀, 수준위 등)

마) 2006년 기도

2006년도에도 무엇보다 기도를 청년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에 둔다.

청년교회에서 실시하는 주요 기도 모임은 다음과 같다.

- 1) 매일 저녁 기도 - 개인적인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 매일 저녁 8시
- 2) 목요 중보 기도 -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 3) 금요 합심 기도 -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도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4) 사역팀 기도 - 각 사역팀의 구체적 사역을 위한 기도 : 사역팀 모임시
- 5) 분기별 특별기도회 - 3개월에 한 주간씩 청년교회의 중요사항을 위한 기도 : 1월, 4월, 7월, 10월

바) 2006년 증거 (전도, 선교)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전도공동체”를 확장시키는 해이다.

- 1) “관계전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누고 실천한다.
- 2) 소그룹에 셀 개념을 도입하여 소그룹이 “전도소그룹”이 되도록 노력한다.

- 3) 이를 위하여 2006년 2월 중에 있는 “겨울 수련회”를 “셀교회 컨퍼런스”를 참가한다.
- 4)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VIP초청잔치”를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5) 지역 내 캠퍼스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대 CCC와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며 사역한다.
- 6) 지난 해부터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군선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즉 군선교회에서 보내주는 진중세례장병의 신앙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전도를 실시한다. 즉 매주 주보를 보내주고, 연 2-3회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며 그들이 제대 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006년도는 청년교회가 “선교공동체”를 확장시키는 해이다.

- 1) 그동안 년 1회 실시하던 단기선교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필요시 단기선교팀의 숫자나 단기선교의 횟수를 확대한다.
- 2) 단기선교는 철저하게 “선교지의 필요에 의한” 단기선교를 한다. 즉 장기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단기선교를 실시한다.
- 3)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과 교제한다. (메일, 편지, 물품 등)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품는다.
- 4) 선교팀에서 축적된 선교적 노하우들을 타교회, 기관 등에 나누는 일을 한다. “단기선교” 사역에 대한 매뉴얼 작업.

- 5) 2005년 4월 파송한 “태권도 청년선교사”를 더욱 잘 지원하고 돕는다.

+ 이 름 : 이형우(29세), 청년교회 리더, 태권도팀장, 태권도 공인5단, 사범 및 생활체육 3급지도자, 심판 3급, 경기지도자 2급, CCC 협동간사, TIA간사, 감신대 태권도선교팀 지도간사

+ 선교지 : C국 C도시

+ 기 간 : 2005년 4월부터 - 2007년 3월까지 (약2년간)

+ 사 역 : 태권도사역, 대학사역

청년교회 선교팀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원회를 통해 돕는다.

필요한 모든 재정은 100% 청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교회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 6) 네팔로 파송한 김은아 청년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선교지로 나가길 헌신하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한다.
- 7) 이후에 파송되는 청년들의 장단기 사역은 모두 자비량의 원칙을 갖는다.
- 8) 그밖에도 여러 선교적인 프로그램과 선교훈련, 타지역으로의 단기선교 등을 통해 아현교회 청년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낸다.

6. 연간계획표(Schedule)

7. 예산안(Fund)

※ 지면관계상 이곳에서는 뺐지만, 위와 같은 목회계획에 “연간계획표”와 “예산안”을 첨부하면 완벽한 청년부의 목회계획이 될 것이다.

8.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라.

시78:72 |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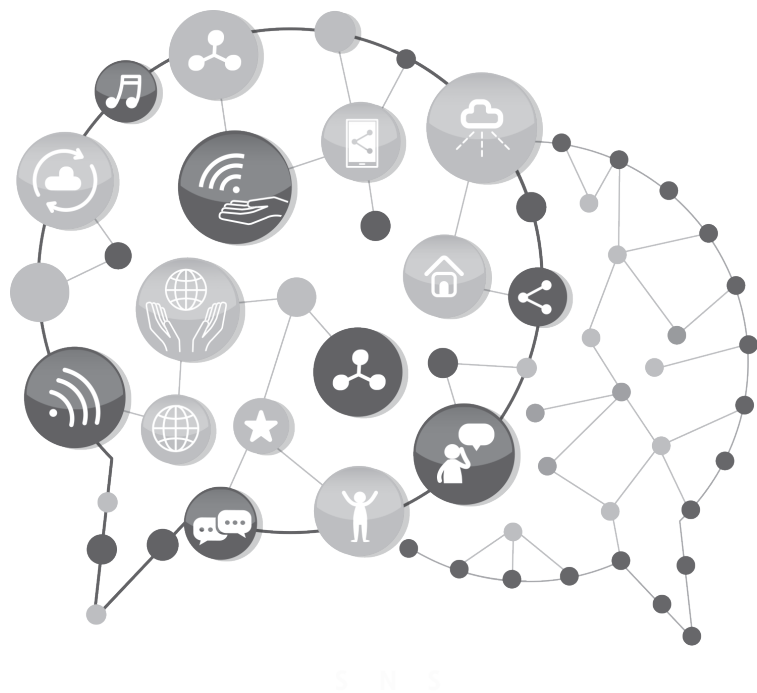
9. 기도하라.

잠16:9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청년사역자들이여!

- +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년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 + 저와 여러분은 이 일로 부름 받은 일꾼들입니다.
- +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하16:9 |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 +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Uplifting 소통으로서의 예배

심은수 목사 베다니교회



교단에서 발간한 새 예배서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 다소 긴 문장이지만 그대로 인용해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의식적 응답이요, 인간 개개인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며 봉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계시>와 <응답>이다. 그리고 두 단어를 <소통>이라는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계시).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응답).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소통이란 단어가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소통으로 이해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예배의 공간은 <소통의 장>, 예배의 시간은 <소통의 때>, 예배의 다양한 순서는 <소통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1. 소통의 출발 - 은혜의 물꼬를 터라

1)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다.
열린 예배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라.
예배에는 세상에서 맞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2) 예배의 은혜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은혜로운 예배는 오래 전부터 모아진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큰 은혜는 철저한 준비 속에 더 자주 일어난다.
미흡한 준비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대충 넘기지 마라.
예배에 관련된 이들의 준비 모임과 점검 모임을 실시하라.

3) 예배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예배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우리 예배의 단점과 한계는 언제든 강점이 될 수 있다.
다른 교회의 예배만 부러워하지 마라.
예배를 위한 헌신으로 예배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지 점검하라.

2. 소통의 과정 - 은혜의 파도를 타라

1) 예배에도 흐름이 있다.

3초 Rule을 명심하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라.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은혜를 각인시키라.

교제는 따뜻하게, 파송은 강렬하게 하라.

2) 예배의 생명은 메시지에 있다.

청중이 청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청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교하라.

메시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 방법은 청중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되 목회자 자신의 삶으로 검증된 메시지를 전달하라.

메시지를 녹음(녹화)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라.

3) 말솜의 능력을 신뢰하라.

청년들의 평소 묵상의 내용과 설교 내용의 맥을 같이 하라.

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되 어설피게 하지 마라.

구체적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라.

청년들에게 맞는 적용을 하려면 제자훈련이든 성경공부든 그들과 자주 함께하라.

4) 예배의 은혜는 기도로 더욱 깊어진다.

들은 말씀은 기도로 결단한다.

말씀 후 그에 맞는 찬양을 부른 후 기도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진다.

개인적인 결단과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한다.

예배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시도한다.

3. 소통의 확대 - 은혜의 파장을 만들라.

1) 청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

특송, 성경봉독, 간증, 봉헌, 광고 등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참여하는 예배를 구상하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되 예배의 주도적 역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과송할 때에는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결단하라.

2) 예배의 흐름이 소그룹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라.

예배에서 나눈 말씀을 소그룹에서도 나누게 하라.

예배 때의 축복의 분위기를 소그룹에도 가져가라.

감동을 주는 모임,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Surprise를 소그룹에서도 경험하게 하라.

3) 세상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가지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새롭게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잊지 마라.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으로 성화의 삶을 점검하라.

그룹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빛된 삶을 결단하라.

정기적 물질의 헌신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시하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삶은 반드시 변화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원활함은 세상과의 소통에서도 같은 은혜로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건강한 청년 공동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가 바로 서 있는 공동체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 청년 공동체의 부흥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 안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자.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에 부어주실 은혜를 풍성히 준비하고 계시다.

1. 우리 예배의 강점은 무엇인가?
2. 공동체의 지체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할까?
3. 새가족이 우리 예배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4. 예배 참석하는 지체들은 나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5. 우리 예배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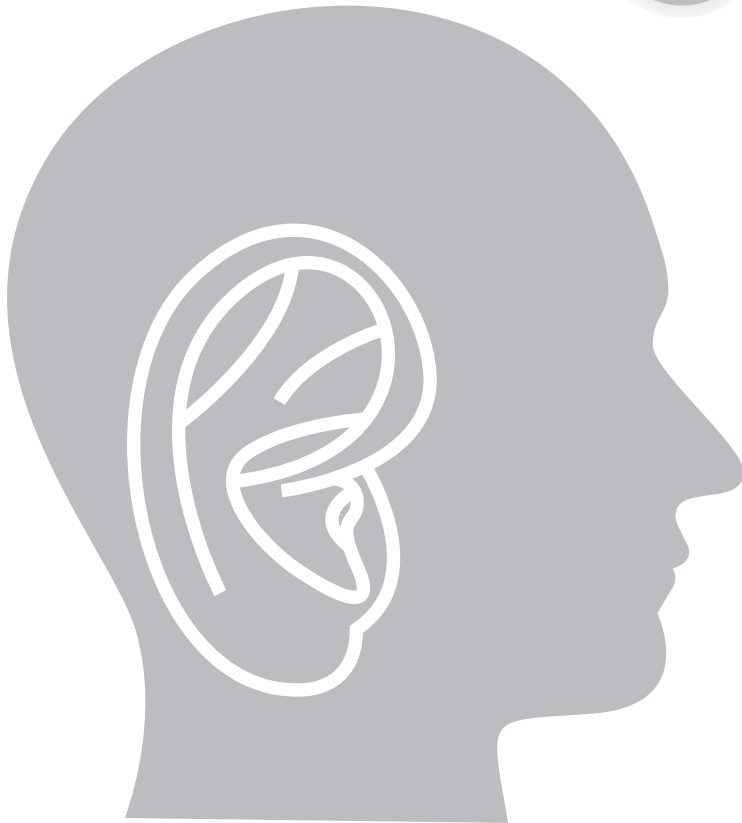


**나의 청년 공동체와 예배를
생각하면서 해볼 수 있는
솔직한 질문 몇 가지**



Listen Up 들리는 설교

김영석 목사 종교교회



1.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설교는 근사하고 멋진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그래야 할 하나님과,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구원의 논리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설교일 수 없습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성경 안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설교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과 충돌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의 설교본문에서 떠오른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갈등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쉽게 단정 짓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목회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맞

추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치열하고도 선한 싸움입니다. 목회자의 의도와 생각에 맞춰 성경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야 한다면 그 생각은 결코 성서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식을 어떻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설교는 말씀을 설득적으로, 공감을 얻어가며, 뜨겁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진실하게 전하되 반드시 설득적이어야 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며,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추구하고 욕망하던 것들을 거슬러 오르게 하는 초청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기보다 설득적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마틴 로이드존스의 표현대로 '설교는 불붙는 논리'입니다. 목회자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설교자는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더욱 관심을 쏟는 알뜰한 노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는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논리적 근거를 더하는 일입니다. 왜 이 본문이 이와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역사, 본문, 사회, 문학적 비평과정을 통해 증명해 내는 일이야말로 설득에 목마른 회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알팍한 욕망의 동의가 아니라 깊은 심연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성을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성의 접근을 놓치면 이성의 논리도 결론을 못 맺습니다. 감정의 이입과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더불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설교자도 청중의 한사람으로 같이 고민하는 접근방법을 가질때 교인들은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의 고민, 몸으로 살아낸 경험을 통해 회중의 공감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심이 어떻게 뜨겁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먼저 성공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성실을 가질 때 참으로 불붙는 진리가 전해 질 것입니다. 세상이 욕망을 향해 외칠 때 설교자는 영성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설교의 결과는 회중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나, 능력있는 설교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 Preparation

1. 본문 읽기

2. 주석 읽기

3. 설교 읽기

1. 플롯 구성

작성 Writing

2. 본문 쓰기

3. 표현 정리

전달 Communication

1. 태도

2. 기술

3. 마음



Upbeat 활기찬 소그룹

김선국 목사 영등포중앙교회

건강한 청년 공동체의 증거는 소그룹이다.

2009년 청년 목회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예배(설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청년들이 저절로 오고 싶은 예배를 디자인하고,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청년들의 코드에 맞게 준비해서 매력적으로 선포하면 청년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고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했었다. 그래서 소위 청년목회의 모범교회라고 소개되는 공동체들의 예배를 직접 탐방하며 배우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와 설교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예배를 잘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영중젊은이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와 설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고, 좋은 모델이 되는 청년공동체들의 예배와 설교는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배우고 있다.

하지만, 약 6년간 청년 목회의 현장을 경험하고 건강한 청년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예배와 설교에만 사활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배와 함께 청년사역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소그룹(small group)'이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후에 살펴보니, 건강한 청년공동체들의 눈에 보이는 특징은 예배와 설교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저력은 사실 '소그룹'에 있었다. 반대로, 청년 사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거나 형성되어져 있더라도 활기가 없고, 정기적이고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청년목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소그룹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강의안은 1-80명의 청년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다. 1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청년공동체는 이미 대부분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소그룹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청년 소그룹 분류

1) Basic - 속회, 목장, 셀, 순, 마을, 구역 등

- 영중젊은이교회는 2014년 현재 8개의 대학셀과 9개의 직장인셀로 Basic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의 명칭을 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셀교회가 지향하는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Basic 소그룹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 4시-6시까지 리더의 인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주일의 설교와 관련하여 설교자가 준비한 나눔지를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한다.(셀나눔지는 토요일에 미리 셀리더들에게 전송이 된다.)
-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대학팀과 직장인팀이 각각 전체가 모여서 그달의 Activity를 진행한다.
- 새가족들은 3주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리더들의 회의와 목회자의 승인을 거쳐서 셀로 배정이 된다. 새가족팀은 6명의 리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가족 모임과 주차별 교육이 끝난 후에는 새가족팀원들끼리 셀나눔지를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2) Leader - Basic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을 위한 소그룹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리더모임이 진행된다. 대학팀 리더 8명, 직장인팀 리더 9명, 새가족팀 리더 6명, 총 23명의 리더와 청년부 사역자들이 모두 함께하는데, 5시부터 30분 동안 리더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인도를 하고, 5시 30분부터 30분간 청년담당목사가 설교 및 광고를 한다. 6시부터 8시까지 각 팀별 리더모임과 리더셀모임이 진행된다.
- 리더들을 위해서는 매년 3월 즈음부터 약 8주에 걸쳐서 리더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연2회에 걸쳐서 리더수련회를 갖는다. 비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독서모임을 갖기도 하고,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리더 펠로우십이라고 하여 리더들을 위한 Activity를 진행한다.
- 젊은이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리더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년담당목회자가 리더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가능한 6개월 간격으로 일대일 심방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3) Activity - Basic 소그룹과는 별개로 청년들의 취미와 관심사로 묶여진 자발적 활동그룹

- 찬양단, 성가대, 운동, 등산, 사진, 자전거, 율동, 디자인, 주보, 사물놀이, 봉사활동 등
- 영중젊은이교회에는 찬양단, 사물놀이, 축구동아리, 중국어동아리, CCD동아리, 행복전도대 등이 자발적인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찬양단을 제외한 모든 소그룹은 청년팀장이 이끌어 가고 있으며, 담당목회자는 비정기적으로 팀장과 만나서 현재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향성을 조언한다.

소개한 소그룹들과는 별개로, 영중젊은이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프로그램들이 있다. 매해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성경공부를 프로그램화하여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특별히 모세오경, 사복음서, 예언서, 서신서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3월부터 4개의 성경 공부반이 개강하였다. 각 성경공부에는 약 10명의 청년들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 진행이 된다.



영중젊은이교회에서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제외하고, 1년에 6-7회에 걸쳐서 <복 있는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1박 2일의 영성 순례(spiritual journey)를 청년들에게 제공 하는데 반응이 꽤 좋다. 읽고 싶은 책과 성경을 들고 한적한 자연이 있는 장소로 떠나서 그냥 머무는 여행이다. 청년들이 참여해야 하는 순서도 없고, 특별한 일정도 없다. 그냥 자유롭게 1박 2일의 시간을 스스로 보내면 된다.

2. 청년 소그룹에 활기를 불어넣는 또 다른 소그룹들

1) 단기선교, 비전트립, 성지순례 등

- 청년들이 영적으로 수직상승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 새로운 리더를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다.
- 참여한 청년들은 Basic 소그룹 안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2) 수련회

- 단기간이지만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3) 또래모임

-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소그룹.
- 적어도 청년부의 규모가 100명 이상은 되어야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독서모임

- 1년에 네 차례 정도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모두 함께 읽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정된 도서 중에, 혹은 또 다른 책을 선정하여 3-4주에 걸쳐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 상황에 따라서 사역자가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리더가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3. 청년 소그룹을 세워가기 전 유의할 점들

1) 청년공동체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역사, 규모, 예산, 영적분위기, 지역적 특색, 훈련된 청년들, 담임목사님의 마인드 등
- 청년부의 규모가 작은 교회는 청년들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 가능한 모든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심방을 해보길 권한다.
- 소그룹을 구성하기 전에 가능한 담임목사님과 상의하기를 바란다.

2) 무리해서 소그룹을 세워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 중대형 청년공동체(100명 이상)의 소그룹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하려고 하지 말자.
- 담당 목회자의 결정과 선포가 아니라 청년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세워가야 한다.
- 때로는 방학과 휴식도 필요하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3)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어떤 소그룹을 구성하든지 담당목회자는 청년들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소그룹 편성이 반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그룹 편성만 잘해도 활기차게 움직인다.

4) 소그룹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소그룹의 정체성이 희미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청년들의 관심도 희미해진다.
- 정체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소그룹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그룹 안에서는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성교제, 관계의 깨어짐, 리더의 역량부족, 독특한 캐릭터, 영적인 분위기 형성 실패
- 변수로 인해 소그룹에 악영향이 없도록 담당사역자의 지혜로운 해결이 중요하다.
- 적절한 타이밍에 변수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경우들도 있었다.

6) 소그룹을 세우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다른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 새가족들은 예배(설교), 새가족모임, 교회의 첫인상, 권명 등으로 소그룹에 들어간다.

4. 활기찬 소그룹을 세워 가는데 꼭 필요한 10가지 키워드

- 1) Scripture (성경)
- 2) Model (예수님)
- 3) Acceptance (수용)
- 4) Leader (인도자)

5) Love (사랑)

6) Growth (성장)

7)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

8) Obligation (책임)

9) Unity (화합)

10) Prayer (기도)

활기찬 소그룹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지만, 사실상 소그룹 모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돌보며 관계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사역자의 뜨거움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활기찬 소그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서로의 노력, 기다림, 기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소그룹이 형성되어져 있을 것이다.

존 웨슬리에게 배우는 소그룹 정신 | 참고 | 존 웨슬리의 생애, 김진두

존 웨슬리는 부흥운동 초기부터 자신의 회심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확실한 연결제도(connexion)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결심이 바로 그의 평생의 원칙이 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원칙의 실천 때문에 메도디스트 부흥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웨슬리는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밭줄과 같이 약해서 쉽게 부스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연결조직(connexional system)이야말로 신자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마자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보호는 어린아이나 신자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지 휘트필드는 언제나 존 웨슬리의 회중보다 더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하였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로서 모든 자질을 타고났다. 우렁찬 목소리, 활달한 성격, 정열, 설득력이 강하고 화려한 웅변, 유머, 폭넓고 포용력 있는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존 웨슬리를 능가하였다. 역사가들은 18세기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조지 휘트필드가 있었고, 변방에는 존 웨슬리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설교에는 강했지만 조직에는 약했다. 그래서 휘트필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한 번 설교에 큰 감동을 받은 후 그냥 흩어져 버렸다.

존 웨슬리는 설교의 능력과 인기에서는 휘트필드에게 많이 뒤졌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한 사람들과 회심자들을 작은 모임으로 연결하고 조직하여 그렇게 연결 조직된 작은 모임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게 하였다. 존 웨슬리의 후계자요 초기 메도디스트 역사가인 아담 클라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휘트필드의 수고는 그 자신과 함께 사라졌으나 존 웨슬리의 수고는 계속해서 결실을 맺었고 놀랍게 성장하였다.”



조지 휘트필드

나의 형제 존 웨슬리가 지혜롭게 행하였소. 그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 깨어난 영혼들을 속회에 연결시켰으며, 이로써 그의 수고가 계속 결실하게 되었단 말이요. 나는 이것을 게을리 했고, 그래서 나의 추종자들은 모래밭줄처럼 되었소.



1. 청년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 1) '종교선호도(호감도)'는 낮고, '종교 이탈률'은 높다.
- 2) 마른 뼈와 같은 현장 : 신앙? 고민과 관심 없는 세대, 교회내적요인과 외적요인
- 3) 생존이냐? 헌신이냐? : 무관심 아니면 탈진
- 4) 감당하기 힘든 시대 문화 : 스마트(smart)한 세상, 올드(old)한 교회

Upgrade 기도와 영성

조세영 목사 금성교회



2. 어떻게 회복하고 세울 것인가?

- 1) 먼저 청년들의 영성을 점검하라
- 2) 공동체(청년부)안의 기도 모임을 점검하라
- 3) 사역자 자신의 문제(영성)와 한계를 점검하라
- 4) 진단, 평가 위에 기도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하라
- 5) 개인기도, 중보기도, 공동체 합심기도가 잘 조화 되도록 디자인하라.

6) 기도는 공동체의 심장(心腸)이다. 뚝심과 끈기, 낙타 무릎이 되라

3. 기도회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1) 기도회를 준비하며 고려해야 할 것

- 기도회인가? 찬양집회인가? 예배인가? 모임과 주제에 알 맞는 진행과 내용
- 기도회의 성격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
- 장소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준비
- 적절한 찬양의 적용과 악기의 중요성
- 말씀의 비중과 찬양의 비율을 잘 조절해야 한다.
- 참석 인원애 따른 기도회 포맷의 변화
- 구체적이고 확장형인 기도제목과 주제가 필요하다
- 세밀한 진행 계획과 점검

2) 기도회 인도의 흐름을 알고 구성을 잘하여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령의 임재와 그를 위한 간구
- 찬양과 죄의 고백(회개)
- 성막, 성전의 제사를 기억하라

3) 다양한 방법의 기도로 집중력과 참여율을 높여라

- 짝기도 (약5:13-16)
- 모세의 기도 (출17:8-16)
- 십자가 기도 (갈2:20)
- 면벽 기도 (왕하20:1-6)
- 섬김 기도 (요13:14-17)
- 물결(파장)기도 (개인 ⇄ 이웃 ⇄ 가정 ⇄ 교회 ⇄ 사회 ⇄ 나라, 민족 ⇄ 열방)
- 한 문단 기도 (one sentence prayer)
- 한 주제에 대한 릴레이 기도
- 전신갑주 기도 (엡6:13-18)
- 야베스의 기도 (대상4:10)
- 나라와 민족위해 (대하7:14)
- 화살기도
- 시냇가 축복기도 (시1:1~6)
- 시편 성구기도
- 다니엘 기도 (단3:18)
- 읽는 기도
- 침묵기도 / 관상기도
- 떼제 기도
- 축복기도
- 마무리 기도

4) 개인기도, 중보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진행하라 .

- 개인기도 (Q.T, 문자 메시지 등)
- 중보기도 (예배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단 조직
- 공동체 기도 (열정적인 영성의 합심기도, 통성기도)
- 특별새벽기도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라.

5)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계획표와 노트를 작성하여 활용하라.

- 일간
- 주간(큰 주제별로)
- 월간

6) 점검하고 발전시키라.

- 청년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기도인가?
- 청년들의 필요(need)에 응답하는 기도인가?
- 지루하고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는 모임은 아닌가?

기도합주회 I

1) 찬양

2) 말씀 및 개인기도

영적 각성과 충만을 위한 기도

- + 짝기도
- + 그룹기도
- + 전체기도
- + 묵상과 찬양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한 기도

- + 짝기도
- + 그룹기도
- + 전체기도
- + 묵상과 찬양

나눔

마무리

기도합주회 II (7 R's)

서곡 I

본곡

기쁨 :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실 것을 바라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드린다.

회개 :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영적각성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큰일을 가로막는 죄악에서 돌아선다.

대항 : 합심기도를 통해 소망에 거스르려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한다.

회복 :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의 크고 충만함을 선포한다.

발산 : 도시와 나라에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교가 이루어짐을 찬양하며,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도한다.

받음 : 말씀과 성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가를 조용히 듣는다.

-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공고하게 해주셨는가?
- 2)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새롭게 결심하고 회개할 영역은 무엇인가?
- 3) 분명히 깨닫게 된 전투의 영역, 즉 새롭게 마주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 4) 영적각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을 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가?

참고자료

5) 어떤 응답이 주어질까를 가늠케 하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가?

6)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순종의 발걸음을 제시하셨는가?

재헌신 : 기도한대로 올곧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간구한다.

종곡

기도합주회 III(4R's)

말씀묵상과 기도 | 에베소서 6장 10-24절

- + 감사와 찬양(Rejoice)
- + 회개(Repent)
- + 간구(Request)
- + 재헌신(Recommit)

종곡

기도합주회 IV (ASK)

말씀 및 개인기도

구하고(Asking)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Seeking) :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Knocking) :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겨레를 품은 기도

- +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 +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 + 캠퍼스를 위한 기도

세계를 품은 기도

부분별 구체적인 기도제목들

개인

01.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02.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03.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스케일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04.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05.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06.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07.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08.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09.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직장 속에서 교회가 주께 다하듯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10.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유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11.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12.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지게 하였던 음란과 미혹, 무정의 영으로부터 놓임받게 하옵소서
13.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를 낮은데서 섬기어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14. 장애우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삶을 돕게 하옵소서
15.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에 서로 나누고 돌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16.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17.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18.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청결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19.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20. 생명의 말씀을 성결함을 통하여 복음 증거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

21. 말보다 삶의 본보기로 자녀들을 훈계하게 하옵소서
22.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23. 우리의 분노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마옵시고 거룩한 화평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24.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되도록 하옵소서
25.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가족이 다 함께 말씀 나눔을 하게 하옵소서

26. 주님의 비전과 크신 뜻을 따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27.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8.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29. 가정에 있는 어떠한 정절과 대의를 저버리는 독소들을 제거하고 성결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30. 부부가 자녀를 돕는데 서로 앞장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31. 가족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말로 가정을 소중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32. 물질적인 어려움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33.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 봉양하게 하옵소서
34.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5. 독거노인과 미혼모, 소년 소녀 가정들이 사랑과 배려로 용기 얻고 살게 하옵소서

교회

36.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 운동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7. 성도들 사이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8.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9.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작은 누룩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기경하게 하옵소서
40. 영혼 구원과 부흥을 위해 교회가 산고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게 하옵소서
41.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교회가 먼저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42.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43.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사랑의 대계명을 교회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44.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가 민족 앞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하옵소서
45.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케 하옵시고 성결한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46. 교단 간에 갈등이 복음으로 화해를 이루도록 하옵소서
47. 교회와 교단의 외적 성장에만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생명 구원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48. 거짓 우상에 신사 참배하였던 한국 교회의 슬픔을 딛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49. 사회의 하나 됨과 기독교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50. 사이비 종교와 거짓 이단의 속임으로부터 교회가 거룩함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민족

51. 민족 부흥의 전기를 이룬 평양대부흥을 통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52.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53.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54.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55. 사회 속에 만연한 술 취함과 방탕, 탐욕과 게으름에서 민족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옵소서
56. 지역 간에 뿌리 깊은 지역주의의 갈등을 복음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57. 남 북한의 한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58. 황금만능주의로 얼룩진 민족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59.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60. 전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민족되게 하옵소서

국가

61. 국가의 지도자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62. 국민 모두가 단결과 통합의 동참자로 서게 하옵소서
63.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참다운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4.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빠져 있는 기업윤리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65.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균형 잡힌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66. 신용 불량으로 깨어진 국민들의 총체적인 아픔을 끌어안는 국가가 하옵소서
67. 사회 전역에 퍼져 있는 음란과 중독의 문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68. 사회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소외자들이 가슴 펴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9. 자살과 낙태, 인간복제와 같은 생명경시 풍조가 사라지고 희망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70. 폭력과 유흥으로 물들어가는 대중문화를 건강한 기독교 문화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71. 정의로운 토지제도가 구현되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72.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73.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74.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믿음과 기도로 헤

쳐 나가게 하옵소서

75. 국가 간의 협력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76. 복음의 불모지 북한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77.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78.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650만 명의 북한 동포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금식하게 하소서
79. 해외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80.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81. 믿음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을 북한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82. 북한의 지도층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83. 한반도에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84. 무너진 3,040여개의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85. 북한의 성도들이 전 세계의 복음 전초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86. 우리 모두가 열방을 향해 기도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87. 복음의 빛진 자로 선교 제일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88.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는 전 세계에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89. 전 세계의 이슬람과 힌두교, 샤머니즘의 거짓 영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90. 6,809개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옵소서.
91.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을 위한 FTT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92.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있는 10/40창 지역과 이슬람 선교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옵소서
93. 21세기를 선교한국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94.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퍼져있는 650여만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선교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를 위한 제목들

주일 | 교회를 위한 기도

- +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 인도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시편65편4절)
-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요4:24)
- +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널리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눅11:42)
- +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마 5:13~16)
- +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롬12:4~8)
- + 교회와 성도가 은혜의 해,희년을 자발적으로 선포하게 하소서(레25:10~17)
- + 주 예수님,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사 모든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 + 교회가 가난하고,멀시받는 자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 + 마지막 때를 당하여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분변하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마7:15~18)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 세계를 위한 기도

- +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세계)에 가득하게 하소서(합2:14)
- + 십자군 전쟁 등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유대인 및 유대교인들에게 행한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에 쌓여 있는 증오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복음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 북한성도들이 어떠한 환란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 해방전 3,040여개의 폐파된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 +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는 58,000여 개의 동상과 혁명화사적지가 철거되어 우상숭배가 중지되게 하소서.
- +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제조의 요충지들을 주님께서 과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핵무기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불들어 주소서.
- + 중국의 가정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해가는 성도들을 잘 가르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 중동을 비롯한 회교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사43:20)
- + 중동 곳곳에서 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선교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개종자와 이들에게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 + 전쟁이나 테러, 보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화해, 협력

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 +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 나라를 위한 기도

- +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간의 대립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게 하옵소서
- +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일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 + 이 세대의 악함을 인하여 이 민족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회개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 +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대통령과 함께 공의를 위해 일할 신실한 조력자들을 계속 세워주소서
- +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서 벗어나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게 하소서.
- + 한국에 대한 열강들의 음모가 드러나서 교회와 민족이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한국이 다시는 열강들의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하게 하소서.
- +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의 핵무장이 저지되고 무산되게 하소서.
- + 주님, 군 전체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 +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하소서
- + 통일을 원치 않고, 분단의 고착화를 유도하려는 열강들의 도

- 모가 무산되게 하소서
- + 하나님의 주권 하에 온 국민이 연합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꾸준히 이루어 가게 하소서.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영적, 물적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 + 통일이후 북한주민을 재 사회화하는 일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북한동포를 상대로 토지투기 등 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게 하소서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 사회를 위한 기도

- + 주여 우리가 주의 법이 얼마나 실체적이고 이로우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회가 얼마나 조화로운 사회인가를 알게 해주소서
- + 생명경시의 풍조가 사라지게 하소서.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양심이 이 일에 눈뜰 수 있게 하옵소서
- + 음란과 간음의 죄가 이 사회에 만연하도록 방조한 죄를 회개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윤리를 갖게 하소서. 혼전성관계가 죄악이라는 것을 모든사람이 깨닫게 하소서.
- + 비인간적인 인신매매 등 사회악이 제거되게 하소서(출21:16)
- + 공의의 하나님, 사회 전반에 팽배한 뇌물 수수 행위가 근절되고, 근로에 의한 정당한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 주여,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녀들의 곤경을 돌아보시며, 결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국 체류 기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장차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 경제, 문화를 위한 기도

- + 물질을 숭배하며, 인간을 경시하는 죄악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하소서
- +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경제를 잘못 해석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경제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게 하소서.
- +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탐심이 사라지고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유통구조가 개편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것을 모두가 함께 흡족히 누릴 수 있게 하소서
- +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투기를 일삼는 대기업, 재벌, 지주, 부자들이 회개하고 이를 눈감아 주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들도 회개하게 하소서
- + 한국정부가 토지공개념,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하소서(레25:8~17, 23~28, 민26:55~56, 왕상21:1~26, 잠3:10~11)
- + 토지문제의 해결로 진정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식투기현상이 배제되게 하소서. 불로소득 풍조가 제거되게 하소서
- + 기독교실업인들이 부패한 자본주의 경제구조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소서.
- + 건전한 기독교문화의 형성과 보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 + 무분별한 개방의 풍조로 인한 성적 방종이 문화계에 범람하고 있는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게 하소서.
- + TV매스컴을 통해 조장되는 폭력과 탐욕스런 사치 풍조가 사라지고, 이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범으로 이 땅에 건

- 전한 기독교 문화가 발달되게 하소서.
- +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가 없어지게 하소서, 도박을 즐기는 풍토가 사라지게 하소서
 - + 반기독교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것에 교회가 눈을 뜨게 하소서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 이웃을 위한 기도

- + 중보하기를 원하는 이웃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 + 주여 ()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 +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소서
- + 주여 ()이 병으로 몹시 괴로워 합니다. 다만 말씀하소서, 그러면 ()가 낫겠나이다. (마8:6~10)
- + 주여 ()의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소서
- + 주님께서 ()의 마음속에 있는 고뇌와 아픈 기억을 치료하여 주소서
- +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진정한 자유가 ()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 + ()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 + ()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니 회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 + 여호와여 ()에게 복을 주시고 ()를 지키시기를 원하

- 며 여호와와 얼굴을 ()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오직, 저와 제 가정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소서
- + 주여 저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사 저희로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소서
- + 주여 성경속의 바람직한 믿음의 가정을 본받게 하소서
- + 믿음의 가정안의 자녀들이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소서
- +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 +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옵소서
- + 아버지여 저에게 더욱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 + 주님, 지혜로운 삶은 곧 경건한 삶인 것을 알게 하소서
- + 주여 저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며, 제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 + 저를 사용하시어서 메마른 다른 지체들을 새롭게 하시며, 또 다른 지체들을 사용하사 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함당치 못한 세속의 정욕, 탐심을 벗어 버리고, 범사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케 하소서

- + 주님,주님은 토기장이요 저는 진흙입니다. 지금 바로 제 안에 부흥을 시작하여 주옵소서.주의 뜻대로 저를 이루사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데 한 부분이 되게 하소서.
- +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Boom Up

단기선교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김동준 목사 강서교회



1. 들어가는 말

선교에 대해 강의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 강의의 주제, 강사의 자격, 강의의 가치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면 결과가 애매할 것이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제목을 패러디한 강의 제목을 선택하였다. 그는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세계적인 소설가이며 또한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이상 완주한 마스터즈 마라토너이다. 마라톤 전문가가 아니지만 마라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도 선교에 관한 전문지식보다는 단기선교의 경험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팁을 나누고자 한다.

2. 단기선교의 가치

단기선교를 목회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때에는 그만큼 가치를 정의하여 회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선교 표어 Go or Send 라는 말처럼 단기선교는 내가 갈 것인가 또는 그 비용을 보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돈만 생각한다면 비용을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성경적이며

이 곳과 선교지의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단기선교의 가치를 주로 영적지도라는 관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1) 영적지도 spiritual direction

영적지도란 그리스도인이 신자다운 생활을 의식적으로 영위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생활 상태에 따른 본분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살도록 돕는 일로서 목회적 돌봄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 종래의 영성의 관심은 기도, 관상, 속죄, 수덕 등 고전적 주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영성신학의 관심은 보다 공동체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영성의 전통적 주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문화 및 정치적 논점들 (해방, 정의, 평화, 나눔, 친교 등)과 그 모든 상호관계 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 체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선교는 영성의 고전적 주제는 물론 영성의 공동체적 주제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영적지도의 현장이다. 왜냐하면 영성은 일상의 모든 상황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생활이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육체, 마음, 영을 가꾸고 일치시키면서 물질 세계와 인간 사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복음화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단기선교의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영적지도를 경험할 수 있다.

2) 함께 걷는 여정과 크리스천 리더쉽

영성의 공동체적 주제를 경험하려면 함께 걷는 여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눅24:13-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걸으며 낙심한 제자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하도록 도우셨다. 크리스천 리더쉽이란 여정을 함께 하며 생명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조차 떠나본 적 없는 제자들에게 땅 끝을 명령하셨다. 땅 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기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할 때 그 여정은 이미 수도원적이다. 일정한 장소에 뿌리 내리고 살기 때문에 겪는 일상의 여러가지 문제들로부터 일단 떠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복음적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에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3) 돌아갈 곳 있는 나그네 영성

단기선교는 반드시 되돌아오는 여정이므로 거주지와 선교지의 경험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 구원받은 인생의 본질은 천국을 향한 여정이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속의 삶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즐겁게 또는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갈 곳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것은 사실인가 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영적지도의 기회가 단기선교이다.

4) 영적책임의식

크리스천 리더십의 요체는 영적책임의식이다. 이것은 말씀과 실천을 비교 분석한 고백으로 강화된다. 단기선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영적책임의식을 경험케 하는 효과적인 기회이다. 영적책임의식을 위해 먼저 행정적 책임의식을 경험토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교팀은 각 참가자에게 고유의 사명을 부여하여 진행하게 된다.

* * 책임의식 훈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책임 설계의 예

- + 예배, 찬양, 악보, 워십댄스, 중보기도, 드라마
- + 행정, 정답, 포터, 서기, 회계
- + 시간, 위생, 환경, 후미
- + 설치, 조달, 장식, 간식

3. 나오는 말

단기선교는 외양상 프로그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역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단기선교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회차의 단기선교의 경험이 다음 단기선교 또는 중장기 선교의 헌신으로 이어지기까지 꾸준히 영적지도의 관점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 일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기도의 삶을 공유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note

note



제6기 감리교 청년목회전문훈련과정

It's UP time!

퍼낸날	2014년 3월 17일
역은이	정현범 02)399-4371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메일	kmcedu@chol.com
디자인	디자인아레테